

Biweekly Tex+Fa Brief

*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는 격주로 섬유패션산업과 관련된 주요 이슈와 업계 및 해외시장 동향, 주요 통계 자료 등을 정리하여 “Biweekly Tex+Fa Brief” 서비스로 제공합니다.

◆ 주요 이슈

☞ 산업부, 대구 섬유패션업계 간담회 개최

-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지난 2일(월) 대구 섬유업체인 서도산업(한재권 대표)을 방문하고, 대구 섬유패션업계 대표와 간담회를 개최. 대구 섬유패션업계는 산업부에 '70년대 말 설립한 대구 비산염색단지'에 대한 현대화와 원사기업 주도형 섬유소재 원천기술 개발, 제조업 혁신 3.0 기반의 '물 없는 칼러산업 육성' 사업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 이에 이관섭 차관은 비산염색단지 현대화 사업은 대구시와 긴밀히 협조해 적극 지원하고, 산업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R&D)을 통해 섬유소재 원천기술 개발 지원방안을 찾기로 하였음. 아울러 중국 등 해외시장 진출 확대와 업계의 자율적인 구조고도화를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함

☞ 우리나라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 65개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13년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수(HS 6단위 기준)는 '11년 61개, '12년 63개에서 소폭 증가한 65개로 집계된 가운데 동 기간 세계 순위도 15위에서 14위, 12위로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임. 국가별로는 중국이 1,538개 품목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했으며, 독일(733개), 미국(550개), 이탈리아(216개), 일본(186개), 네덜란드(136개), 인도(135개), 프랑스(108개) 등의 순으로 조사. 한국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화학제품(21개), 철강(11개), 섬유제품(8개) 등이 전체의 6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 한국의 섬유류 세계 수출시장 1위 품목 (백만불, 점유율%)

- 합성스테이플섬유(1,049, 26.1), 의류 부속품(251, 18.1), 의류 부분품(234, 24.8), 염색한 강력사 85% 이상 합성필라멘트직물(217, 21.5), 기타 나일론(152, 12.5), 염색한 합성필라멘트혼방직물(47, 14.9), 기타 합성스테이플섬유직물(29, 33.9), 기타섬유제의 파일 및 셔닐직물(10, 15.4)

☞ 중기청,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공고

- 중소기업청은 최근 강화되는 기술무역장벽(TBT)에 대응하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돕기 위해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 '15년에는 일반 241개 규격인증과 소요비용 3천만원 이상의 고부가가치 규격인증에 대한 지원을 확대. 일반규격인증은 80억원 규모에서 약 1,400업체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며, 소요비용 3천만원 이상인 고부가가치 인증은 60억원 규모로 작년 대비 2배 확대하여 200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 신청접수와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온라인시스템(www.exportcenter.go.kr)을 참고하면 됨

◆ 업계 동향

☞ '14년 대구경북 섬유류 수출 31.3억불 기록

- 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 무역협회 통계자료에 따르면, '14년 대구경북 섬유류 수출은 전년대비 0.4% 감소한 31.3억불로 전국 섬유류 수출의 19.6%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남. 섬유화이버(Δ 5.6%) 수출이 감소했지만, 사류(1.5%)와 직물류(0.4%), 제품류(1.1%) 수출은 소폭 증가했으며, 최대 수출 품목인 인조장섬유직물 수출은 1.5% 증가한 8.5억불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 한편, 수입은 인조장섬유사(32.6%), 면직물(12.2%), 편직물(21.3%) 등의 섬유소재 수입이 급증하고 의류를 포함한 제품류(16.7%) 수입도 크게 늘면서 전년대비 16.0% 증가한 8.0억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올 연말 해외 면방설비 국내 과반 넘어설 전망

- 면방업체의 해외생산이 확대되면서 올 연말 해외생산능력이 62만7천추에 달해 국내 생산능력의 과반을 넘길 것으로 전망. 지난해 말 기준 면방업체 국내 생산능력은 119만추(태전방직, SG충남방직 제외), 해외는 53만5천추 규모로 알려짐. SG충남방은 논산공장의 링정방기 4만3천추를 지난해 1월말 중단하고 베트남 공장으로 설비 이전에 나섬. SG충남방은 기존 베트남 설비를 포함해 설비 이전과 최신 기종 추가 설치로 베트남 생산 설비만 10만5천추에 달할 전망. 동방생활산업도 천안 공장 3만1천추 가동을 중단하고 중국 생산에 집중한다는 방침. 동일방직은 지난해 인천공장 3만추 가동을 중단하고 올해 베트남 동나이 지역에 약 4만8백추 공장을 가동시킬 예정. 일신방직은 띠이닝성 지역에 링정방 6만6천추 규모를 건설해 오는 10월경 본격 가동 한다는 방침

☞ 백화점 매출 10년만에 감소세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백화점 업계의 상품 판매액은 29조2,321억원으로 전년 대비 1.9%(약 6천억원) 감소한 29조7,968억원을 기록. 통계청이 '95년부터 집계한 백화점 성장률이 감소한 해는 이전까지 3차례로 외환위기 한파가 몰아친 '98년(△9.0%), 카드사태로 내수가 얼어붙은 '03년(△3.0%)과 '04년(△4.4%) 뿐이었음. 유통업계는 백화점의 역성장이 내수침체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고 구조적 한계에 봉착한 것이라고 분석. 빅3의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해 롯데백화점 매출(아울렛 10개점 포함)은 8조 5,580억원으로 '13년 대비 0.7% 줄면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임. 신세계도 '03년 카드 대란 이후 11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해 매출액이 2.7% 감소(1조5,020억원). 반면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매출액이 1.2% 증가(1조5,519억원)한 것으로 나타남

◆ 해외시장 동향

☞ '14년 미국 섬유류 수입 2.6% 증가한 1,075억불 기록

- 미국 상무부 섬유류 사무국(OTEXA)에 따르면, '14년 미국 섬유류 수입은 전년 대비 2.6% 증가한 1,075억불로 의류 수입은 2.5% 증가한 818억불, 섬유 수입은 3.0% 증가한 257억불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 국가별로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418억불로 0.3% 증가에 그치면서 미국시장에서의 점유율(38.9%)이 전년에 비해 0.9%p 하락. 반면, 베트남은 13.5% 증가한 100억불로, '13년에 이어 두 자리수 증가율을 보이면서 미국시장 점유율이 9.3%로 0.9%p 상승함. 이밖에 상위 10개국중 인도(67억불, 6.6% ↑), 멕시코(48억불, 2.7% ↑), 온두라스(26억불, 3.5% ↑)로부터 수입이 늘었고, 인니(51억불, △3.2%), △방글라데시(50억불, △2.0%), 캄보디아(25억불, △2.8%)로부터 수입은 감소함. 한편,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0.6% 증가한 9.3억불로 전체 수입의 0.9%를 차지했으며, 주력품목인 직물류는 4.1% 증가한 5.3억불로 미국 전체 직물 수입의 8.5%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남

☞ 섬유분야 TPP 기대효과 반감 가능성 제기

- TPP 협상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美 섬유정보지인 'Textile World'에 따르면 그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 미국 FTA 협상 전례로 볼때 원산지 기준은 'Yarn Forward'가 확실히 되고 있으며, 다른 FTA들과 달리 TPP 발효시 모든 의류제품의 관세가 즉시 철폐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미국은 섬유분야 특혜대우와 관련해 3가지 바스켓으로 단계적 철폐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짐. 1단계 바스켓은 비민감품목군에 대해 관세를 즉시 철폐하고, 2단계에서는 비교적 민감한 의류품목에 대해 5년간 20%씩 단계별로 관세를 철폐, 'X' 바스켓이라 불리는 3단계는 일정 비율(35~50%)만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나머지는 10년 또는 15년간 고정되는 체계임. 여기에는 면제와 화섬제 셔츠나 스웨터, 바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아울러 공급부족(Short Supply) 품목의 유연성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 TPP 논의 이후 베트남 의류 수입이 40% 이상 급증하는 등 미국 섬유업계와 중남미 국가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

☞ 중국 섬유·의류 수출 증치세 전액 환급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올해 1월 1일부터 혈관 스텐트, 분무 로봇 등 고부가가치 제품과 옥수수 가공제품, 섬유·의류 제품에 대한 수출세 환급률을 상향 조정하고, 생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보론강(붕소합유 특수강) 등 제품을 환급대상에서 제외시킴. 섬유·의류제품의 증치세(17%)는 전액 환급되며, 이는 수출 비중과 고용 유발 효과가 높은 섬유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한 조치로 분석. 과거 중국은 증치세 환급률을 수출을 조절하는 정책으로 빈번히 사용한바 있음. 한편, '14년 중국 섬유류 수출(HS 50~63 기준)은 2,877억불로 전년대비 5.0% 성장에 그치면서 성장률이 '13년(11.3%)에 비해 6.4%p 떨어짐. 특히, '14년 11월, 12월 수출은 각각 0.5%, 1.3% 감소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음

◆ 주요 통계발표 자료

☞ 통계청 '14년 연간 산업활동동향

- 전산업 생산은 건설업에서 감소했으나, 서비스업, 공공행정이 늘면서 전년대비 1.1% 증가. 제조업 생산은 자동차, 기계 등의 생산이 늘었지만, 전자부품, 컴퓨터 등의 생산이 줄면서 0.1% 감소함. 섬유산업 생산은 섬유제품 제조업(△1.6%)이 소폭 줄었지만,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6.0%), 화학섬유 제조업(△4.9%)의 생산 감소폭이 크게 나타나면서 전년대비 3.8% 감소함

< 산업활동동향 생산 유관 지수 (2010=100 기준, 전년대비 %) >

구 분	전산업		제조업		섬유산업	
	'13년	'14년	'13년	'14년	'13년	'14년
생산지수	106.2(1.6)	107.4(1.1)	107.8(0.3)	107.7(△0.1)	95.9(△3.2)	92.3(△3.8)
출하지수	-	-	107.6(0.4)	107.4(△0.2)	96.3(△2.8)	92.6(△3.8)
재고지수	-	-	131.4(5.0)	127.6(△2.8)	122.1(9.1)	124.5(2.0)

☞ 코트라 '15년 수출기업의 경제전망 조사 결과

- 국내 중소·중견기업 888개사를 대상으로한 경제 및 수출전망 조사 결과 국내 중소·중견기업은 대기업보다 올해 경제전망을 부정적으로 보는 반면, 수출증가에 대한 기대는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응답기업들은 '15년 경제전망에 대해 '보통' 42%, '부정적' 35%, '긍정적' 23%로 대답. 이는 지난해 '14년 경제를 긍정적(31.7%)으로 보는 전망이 부정적(19.5%)일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게 나온 결과와 대조적임. 세계 경제 회복 여부가 불확실한 가운데 수출에 가장 영향을 미칠 해외 요인으로는 '엔저 등 환율문제(44%)'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으며, '중국의 저성장(20%)', '유가 하락(12%)', '지속되는 유로존 위기(6%)' 등의 순으로 응답

◆ 원자재 가격 동향

☞ 원면 가격은 지난해 가격 급락에 따른 생산 축소 전망으로 반등세를 보이면서 5월 인도물 가격이 2.7% 상승함. 국제면화자문위원회(ICAC) 월간 발표자료에 따르면, '15-'16시즌 세계 원면 생산은 경작면적이 줄면서 6.6% 감소한 2,455만톤에 그칠 것으로 전망. 미국 농무부(USDA) 원면 수출 통계도 중국, 베트남, 인니 등의 수요 회복으로 상승세를 보임. 하지만, 폴리에스터 사용 증가가 원면 가격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화섬원료 가격은 국제유가 반등으로 상승세를 보임

품 목(단위)	날짜	조건	가격	1주전 대비	4주전 대비	3개월전 대비
원면(¢/LB)	2/6	미국('15년 5월 인도분)	61.63	2.7%	0.5%	△1.5%
PTA(\$/MT)		CIF China	590	3.0%	0.0%	△21.3%
MEG(\$/MT)		(90 days credit term)	778	3.7%	9.6%	△3.4%

섬유패션산업 동향

Biweekly Tex+Fa Brief

- 발행처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산업조사팀
 - 주소 : 서울 강남구 대치2동 944-31 섬유센터 16층
 - 홈페이지 : www.kofoti.or.kr
 - 전화 : 02-528-4024 / 팩스 : 02-528-4070
-